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첫 산업안전관리감독자 임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는 안전 관리를 담당할 감독자 등을 임명했다. 전북도는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협업 업무분야 안전관리를 책임질 과장 및 팀장급 안전보건관리감독자 59명과 안전담당자 1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본격

도, 내일 시행 따라 관리 대상 안전체계 구축 '이상 무'  
중대재해 발생 예방 위한 가이드라인용 대응계획 배포

전북도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사전예방 및 대응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이행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관련기사 2면·6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관(법인)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관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과를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전 중대재해 관련법인 산업안전보건법과 큰 차이점은 '중대산업재해'라는 개념이 새롭게 생겼으며,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관리 대상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의무를 기관(법인)이 아닌 경영책임자(개인)에게 부과했다는 것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관리대상별 시민과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개인과 법인·기관에 대한 처벌이 병과된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각 지자체는 중대재해예방 노력 등 법적 의무 이행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우선,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시·군과 도 산하기관에 배포했으며, 중대재해 TF팀 구성을 준비하고 본격 가동해 타 시·도보다 앞서 대응계획을 수립·발표했다.

또한, 법 시행에 대비한 시·군 부단

체장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했으며, 교량 등 중대산업재해 대상 시설물을 관리하는 도와 시·군 담당자 법 안내 교육을 이미 실시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이어, 도는 중대재해예방 대응계획에 중대재해 발생예방을 위한 도 직점관리 대상시설을 검토 확정하고, 부서별 담당업무를 지정했다.

또한, 도 안전·보건체계 점검과 도 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법적 의무사항을 과제화해 추진 방법을 제시하고 안내해 도와 시·군 업무담당자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첫째,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보고→개선조치 체계를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설물별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조치하고, 중대재해발생시 대응매뉴얼을 마련, 비상 상황대비 대비훈련 등을 실시한다.

둘째,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 직점관리 사업장과 종사자에 대해 기존 현업업무자뿐 아니라, 일반·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산업재해관리체계를 확대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대응계획을 보완해 설명하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도는 우선 도 직점 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오는 2월부터는 시·군과 민간운영시설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청 산하기관과 시·군에 부처별로 분산된 자료를 묶은 통합 해설서를 제작·배포하고, 전북도 중대재해예방 대응계획(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대응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사실별·분야별 총괄부서와 담당자를 확정하고, 중대재해 예방과 면책을 위해 법적의무사항인 각 시설별 사업장별 안전계획 수립에 인력, 예산, 점검계획, 교육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안전계획 이행여부 등 법적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담당자 등 안전관리담당자 의무교육 수강 여부를 파악하고 조치하며, 추진과제가 법에서 명시한 면책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도 대응계획의 제도적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가칭)전북도 중대재해 업무추진 시행규칙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제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며 "저를 포함한 지자체장과 기업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가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대재해를 예방해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기업의 경영책임자분들께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현장직업자 등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향후, 도는 우선 도 직점 관리 대상

## 새만금, 스마트 수산경제 거점으로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올 주요업무계획 속도감 있는 개발·어촌 활력 회복 등 4대 목표 제시

전북도가 올 한해 그린성정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새만금을 스마트 수산경제와 해양문화 거점으로 육성한다 고 25일 밝혔다. 새만금해양수산국은 이날 2022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수질개선, 수산·어촌의 활력 회복과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4대 목표, 20개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특히 새만금 개발 및 기반시설 적기구축,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행위 추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강화, 특화항만 조성 추진 등을 통해 새만금개발을 가속화하고 해양수산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속도감 있는 개발 및 투자유치로 새만금 성장기반 구축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매립공사를 마치고 2024년 12월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3GW, 6조5,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는 제조·연구 등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총 300MW 규모의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앞으로, 연간 약 8만여 가

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신시도호벨은 올해 초 착공 예정이고, 1호 방조제 인근의 초입지 개발사업은 올해 조성단계부터 추진할 민간사업자행사를 찾을 예정이다.

▲강과 호수, 해양을 잇는 새만금의 깨끗한 물 확보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행위에 대한 연차별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전주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새만금 상류하천에 대한 44개과제 144개 세부 수질개선행위를 연차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스마트 하수처리장 선도사업을 통해 자동제어 체계를 구축, 전력·약품비 등 운영비 절감 및 안정적인 방류수질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다.

▲수산업 가치 증진을 통한 활력 넘치는 어촌 건설 어촌뉴딜 300, 권역단위 어촌특화 사업을 통해 어촌정주여건을 혁신하고, 어민공익수당 지급 및 수산직 불체 시행 등을 통해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어촌 존속의 여건을 조성한다.

환경친화적인 양식환경을 조성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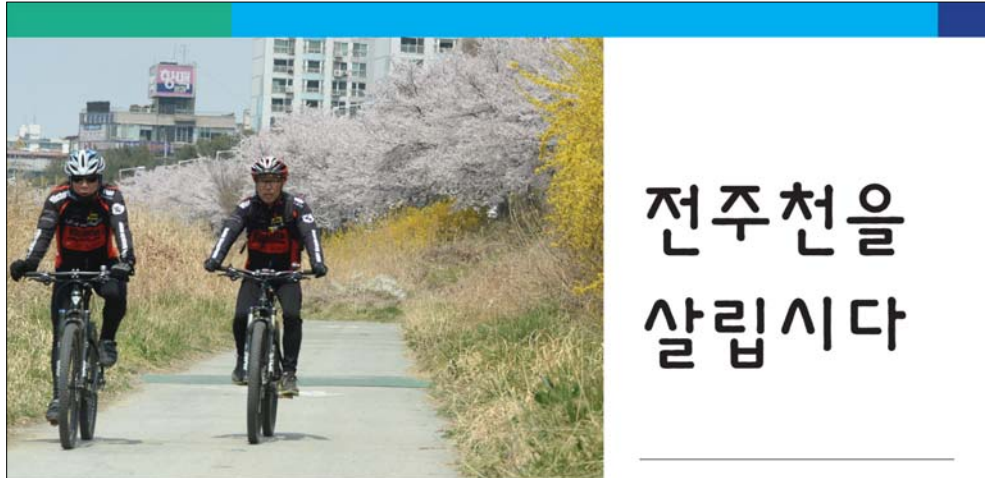
고자 친환경 부표 보급,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내수면 양식장 친환경 정화시설을 지원한다.

스마트 수산기공 종합단지 조성사업 공모 유치에 추진하며,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IFC) 조성을 통한 대규모 수산물 처리·가공으로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고, 어촌 수산물 특화센터 조성,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수산물의 소비확대를 유도,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나갈 계획이다.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및 글로벌 항만 도약 갯벌생태환경 활성화 사업에 11억원 투자하고, 부안군 격포 및 군산시 연도지구 등 총 2개소에 39억원 투입해 호안 정비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 7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특히, 바다환경지킴이를 전년보다 2배 많은 108명을 채용, 지역민 주도 및 민관공조형 해양쓰레기 유입방지 관리 체계 구축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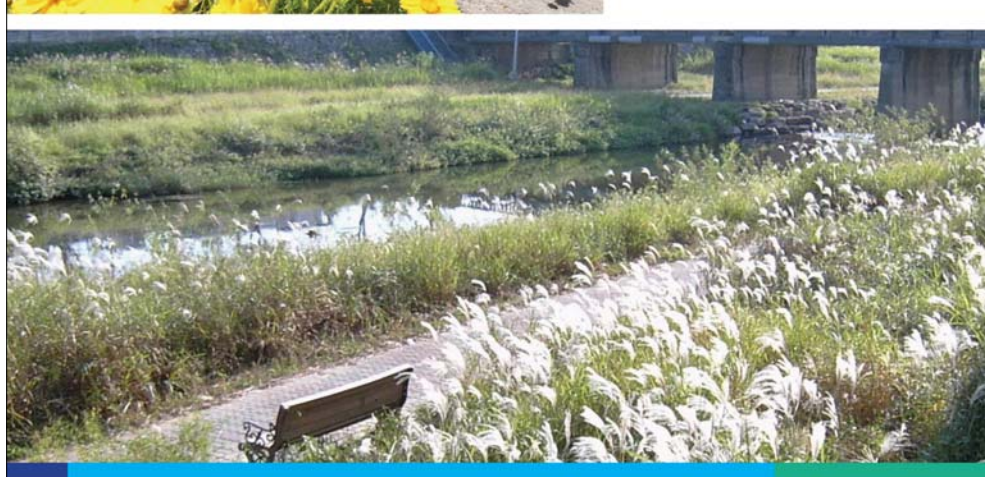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등 올해 항만관련 사업에 산을 전년도 1,187억원 보다 493억원 증가한 1,68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북 항만 경쟁력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유호상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주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 자동차 부품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신원식 도 정무부지사 완주 봉동 우신산업 방문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25일 완주 봉동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인 우신산업(주)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코로나19의 지속세속에 자동차 부품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신산업(주)은 지난 1994년에 설립된 이래 현대자동차 및 기아차 등에 연료 탱크 배기파이프 등을 생산·납



25일 완주 봉동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인 우신산업(주)을 방문한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우신산업 직원들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품은 온 전북도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기업이다.

신 부지사는 곡중하 우신산업 대표의 기업설명과 함께, 생산 공정을 둘러보며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의 임직원과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신원식 부지사는 "자동차산업 패러

다임 변화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도 자동차 산업의 한축을 묵묵히 담당하는 부품기업에게 감사한 마음"이라며 "도에서도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